

# 광산구 골목상권 비대면 디지털화

### 상인회 조직화·활성화 정책 기반 스마트 시범상가 2년 연속 유치 디지털 전환 발 빠른 대응 포스트코로나 성장 동력 확보

광주 광산구가 상권 조직화와 활성화 정책을 기반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골목상권의 변화를 견인하고 있다.

28일 광산구에 따르면 수완지구 나들목 상가와 어룡동 상가 2곳이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 시범상가 공모 사업에서 선정됐다. 지난해 선운지구 상가와 하남2지구 상가에 이어 2년 연속 사업 유치가 성공했다. 코로나19로 소비·유통 환경이 비대면, 온라인, 디지털 중심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광주에서 가장 먼저 스마트 상권 구축에 나선 결과다.

광산구의 스마트 상권 구축 사업은 상권 조직화를 비롯한 전문 교육을 통해 골목상권의 강화된 역량에 기반 밑바탕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산구는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산재돼 있던 골목상권 상인회를 권역별로 조직화했으며, 5개 불과하던 상인회는 현재 20개로 4배나 증가했다.

상인회가 꾸러지면서 정부 지원 정책에서 소외돼 있던 골목상권이 여러 공모사업에 적극 뛰어들 수 있는 힘이 생겼고, 다양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스마트 상가 시범사업이 추진된 광산구의 한 미용실을 찾아 스마트 미러를 체험하고 있다.

광산구는 또 사장님 아카데미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해 상인과 상권의 경쟁력과 전문 역량을 키우는 데도 집중했다. 축적된 성과는 광산구 골목상권이 갑자기 들이닥친 코로나19와 디지털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지난해 선운지구 상가와 하남2지구 상가가 광주 최초 스마트 시범상가로 거듭난 것이 대표 사례다. 총 89개 점포가 스마트오더, 키오스크, 스마트

미러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최첨단 상가로 탈바꿈했다. 선운지구에는 설치한 4대의 디지털 사이니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상권의 활력을 되찾는데도 기여하고 있다.

선운지구의 한 상인은 “서빙로봇을 도입한 뒤 손님들이 재미있게 생각하고, 좋아하기도 한다”면서 “로봇이 서빙한다는 입소문에 매장을 다시 찾는 손님이 늘었고, 매출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광산구 골목상권이 2년 연속 스마트 시범상가 공모에 선정된 것 역시 조직적으로 활성화된 상인회, 기업주치의센터를 중심으로 골목상권을 지원하고 있는 광산구의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된 결과라는 평가다.

광산구는 올해 수완지구 나들목 상가와 어룡동 상가 120개 점포를 대상으로 스마트기술과 스마트 오더가 결합된 기술을 보급한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00개가 넘는 스마트 상점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광산구는 이를 통해 골목상권의 경영과 서비스 혁신을 도모하는 한편, 스마트 상가를 확산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상권 조직화와 행정의 시너지는 비대면·디지털 변화에 맞선 광산구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면서 “디지털 전환을 골목상권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상인회와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비이농협, 코로나 의료진 격려 광주비이농협(오른쪽 세번째 박홍식 조합장)은 최근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수완센터빌딩(오른쪽 4번째 고길석 대표회장)을 방문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대추방울 토마토 50여박스를 전달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골목상권 소상공인 배달 시스템 구축

### 광산구, ‘배달 뉴스타트 지원사업’ 참여 점포 모집

광주 광산구가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배달 시스템 구축을 돕는 ‘사장님! 배달 뉴스타트 지원사업’ 참여 점포를 8월 25일까지 모집한다.

‘사장님! 배달 뉴스타트 지원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필수 영업 전략이 된 배달을 아직 시작하지 않은 소상공인의 온라인 배달업 진입을 돕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다.

구는 총 10개 점포를 모집해 ▲현장방문 컨설팅 2회(배달업 진입 지원, 배달 메뉴 세트 구성·제안) ▲점포별 배달용 CI 스티커 제작 ▲포명회를 통한 점포별 교차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한다.

광산구 내에서 6개월 이상 영업하고,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면서 온라인 배달을 준비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구는 HMR(Home Meal Replacement, 가정 간편식), 밀키트(Meal kit, 반가공 조리식품) 등 신(新) 배달 사업에 참여하는 점포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참여신청 서식은 광산구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네이버 폼(<http://naver.me/GOumDNTa>)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도심 온도 낮춰라” 살수차 운행...선별진료소엔 얼음생수

### 광산구, 폭염 피해 예방 총력 횡단보도 그늘막 132개 설치

광산구가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광산구는 최근 광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부구청장 이돈국) 주재로 ‘2021년 폭염 대응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구민들을 지켜내기 위한 폭염 예방 대책을 점검했다.

광산구는 우선 코로나19 4차 대응행으로 검사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선별진료소와 백신접종센터의 폭염대책을 신속히 정비했다.

선별진료소를 찾는 구민을 위해 그늘막을 설치하고, 안전우산도 비치했다. 또 대기 중인 구민의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 얼음덩어리를 곳곳에 비치했으며, 얼음생수도 제공하고 있다.

실외에 있는 ‘광산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의 대기 공간에는 열기를 식히는 대형 차광막,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냉방기를 작동하고 있다.

더위에 지친 야외 근무자들에게 아이스팩과 쿨타올 등 냉방용품 지원하고 있으며, 예진 의사 수를 늘리고 자원봉사자 등 행정 지원 인력을 추가 배치해 접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있다.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마련됐다.



구는 온열질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대폭 강화했으며, 무더위쉼터 375개소에 대해선 냉방비와 냉방용품을 지원하고, 건설 현장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무더위 휴식시간제 홍보도 적극 펼치고 있다.

도심의 열기를 식히기 위해 살수차 운행도 시작했다. <사진> 최고 기온이 31도 이상일 경우 일 3

회(오전 1회, 오후 2회) 주요 도로를 대상으로 살수차를 운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 그늘막 132개소를 운영 중이다.

광산구는 앞으로 무더위 쉼터를 확대 지정하고 스마트 그늘막, 쿨루프, 쿨페이브먼트 등 폭염저감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폭염 저감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산구, 지역에너지센터 시범사업 선정

### 민·관 거버넌스 구축, 에너지전환·자립 등 추진

광주 광산구가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및 센터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지역에너지센터는 민·관 협치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시민 실천과 공감대를 확산하는 중간지원조직이다. 공모 선정으로 광산구는 국비 1억 원을 확보, 광주시와 함께 지역에너지센터 시범사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광주시, 광주시의회, 광산구의회를 비롯한 전문기관, 시민단체, 대학, 기업 등과 민·관 협의체(거버넌스)를 구성해 에너지전환 시민교육 및 전문가 양성, 에너지 데이터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동 단위 ‘에너지전환마을’ 모델 시범사업 등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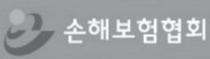
광주시는 관련 정책과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광산구는 홍보·교육을 통해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집중한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전력 자립률 25% 이상 달성, 에너지 소비(전력분야) 20% 절감, 온실가스 배출 15% 이상 감축을 실현하는 게 목표다.

7월 기준 광산구의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 규모는 143MW다.

광산구 관계자는 “지역에너지센터를 통해 구민과 함께 지역에 맞는 에너지전환·자립 모델을 만들고 있다”면서 “모범적인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를 만들어 광주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엄마, 보고 싶어요

음주운전!  
당신 자녀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2018년 윤창호법이 통과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